

日 기시다 “北김정은과 정상회담 위해 고위급 접근 진행 중”

방미前 인터뷰 “미해결문제 해결·일북관계 안정화 목적” “역사적 전환점 직면...日 역지력 증강은 미일동맹에 필수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방문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7일(미국시간) 보도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일정상회담 추진의 목적은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미해결 문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남북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일본이 납치 문제를 거론하자 지난달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또 CNN에 “일본의 역지력과 (군사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미국이 이를 이해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

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러시아의 침공과 중동을 둘러싼 계속된 상황과 동아시아의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며 “이것이 일본이 방위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들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안보 정책을 크게 전환할 이유”라고 말했다.

그와 더불어 “우리 이웃에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국방 역량을 증강 중인 나라들이 있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있다”며 북한과 중국발 안보 위협이 일본 방위 정책 전환의 배경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기시다 내각 하에서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공격 역량 확보에 나서는 등 평화화



오는 10일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법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서 점점 탈피하고 있는 것은 주변 안보 상황 상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최근 강화하고

있는 북미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 질서와 안정에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유지가

중요하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북·중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일동맹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우려하는지는 질문에 “일·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며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국민들이 일미관계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한 뒤 11일 미 의회 연설과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 7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 오르스크에서 발생한 홍수로 주민들이 보트를 타고 대피하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러 남부 오르스크 홍수 비상사태...주택 6천800여채 침수

우랄강 댐 무너져 역대 최악...러 남부·카자흐 북부 피해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 오르스크를 중심으로 발생한 홍수로 6천800여채의 가옥이 침수됐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6천800채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홍수로 침수 피해를 봤으며, 상황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오렌부르크주라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쿠렌코프 비상사태부 장관은 이날 오렌부르크주에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오렌부르크주 제2 도시 오르스크에

서는 지난 5일 폭우로 인해 우랄강의 댐이 무너지면서 6천600채 이상의 가옥이 침수되고 주민 4천500명 이상이 대피했다. 쿠렌코프 장관은 오르스크 홍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당국은 우랄강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위험한 수준이며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르스크의 강 수위는 96m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됐다.

또 오는 9-10일 홍수가 절정에 달한 뒤 20일 이후로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

했다. 러시아 기상 감시기관인 로스기드romेट트는 오렌부르크의 우랄강 수위가 사흘 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슬러 주지사는 “이번 홍수는 관측 역사상 최대 홍수”라며 “침수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는 주민은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대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북부와 서부 지역에도 대규모 홍수로 비상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구 극한점 맞아? 남극기온 38.5도 ‘굉충’

온난화로 빙하·해빙 급격 붕괴...크릴새우·황제펭귄 멸종 우려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남극의 기온이 한때 계절 평균보다 38.5도나 수직 상승한 것으로 관측돼 남극이 지구 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빙하와 해빙이 급격히 녹는 것은 물론이고, 남극 생태계를 떠받치는 크릴새우가 감소하고 황제펭귄이 치명적인 번식 실패를 겪고 있어 인류와 남극 생태계에 재앙이 닥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남극 롱코르디아 기지의 과학자들은 2022년 3월 18일 남극의 기온이 계절 평균보다 38.6도나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이 같은 온도 상승폭은 유례가 없었던 일기 때문이다.

빙하학자인 마틴 시거트 엑스터대

교수는 “이 분야에서 누구도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전혀 없는 일과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자들은 극적인 기온 상승이 저위도 지역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과거와는 달리 남극 상공 대기권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한다.

남극은 지난 2년간 인간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빠르게 굴복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서쪽 남극의 빙하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녹고 있고, 남극 대륙 주변 바다에 떠 있는 해빙 역시 급격히 감소 중이다.

과학계에 따르면, 북극과 남극이 다른 지역보다 큰 타격을 입는 이유는 따뜻해

진 바다가 해빙을 녹이기 때문이다. 얼음 아래서 빛을 보지 못하면 바다가 노출되고 태양광이 우주로 반사되지 못하면서 바다가 더욱 가열된다. 이는 바다가 줄어들면 수십 년 안에 상당한 해수면 상승이 예상된다.

기후 변화와 관련한 정부간 협의체는 이번 세기까지 해수면이 0.3-1.1m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남극의 생태 역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영국 남극조사국의 케이트 헨드리 교수는 조류(藻類·물속에 사는 식물)가 남극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물고기, 펭귄, 바다표범, 고래 등의 먹이가 되는 크릴새우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릴새우의 멸종은 남극 먹이사슬의 붕괴는 물론이고 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는 요인이다. /연합뉴스

美 복권 1조7천억 잭팟 터졌다

미국에서 1조7천억원이 넘는 복권 ‘잭팟’이 터졌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서부 오리건주에서 판매된 파워볼 복권에서 이날 미국 역사상 8번째로 큰 약 13억달러(1조7천589억원)의 당첨자가 나왔다

고 보도했다.

새해 첫날 마지막 파워볼 1등 당첨자가 나온 뒤 3개월 넘게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던 당첨금은 이월돼 계속 불어났고, 41번째 추첨 만에 마침내 당첨자가 나왔다.

당첨자는 구매한 복권의 두 자리 숫자 6개가 모두 일치해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당첨번호는 흰색 공 22, 27, 44, 52, 69, 빨간 공 9였다.

파워볼 1등에 당첨되려면 흰색 공의 숫자 1-69 가운데 5개, 파워볼로 불리는 빨간 공의 숫자 1-26 가운데 1개를 맞춰야 한다. 이 6개 숫자를 모두 맞출 확률은 2억9천200분의 1이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dji HDKorea

HDKorea

㈜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및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 해보세요”

임동점 광주 북구 금남로 24 | Tel. 062) 522-2000

금호월드점 광주 서구 군분2로 54 | Tel. 062) 350-8397